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주 제:	“일치의 성령.”	“성령강림 대축일” (다해)	2007년 5월 27일
복음 묵상:	[요한 20,19-23]	[사도 2,1-11]	[1 고린 12,3ㄴ-7.12-13]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와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동안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일치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져 불신하고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심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아니면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 받은 느낌 그대로 진리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친교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신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인천 윤승일 신부님 강론 에서)

+ 복음 [루가 24,46-53]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성령 강림의 의의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어서 세상 종말까지 지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탄생, 즉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탄생과 그 시작은 성령의 놀라운 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힘은 인종과 나라의 온갖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삶에서 맺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 7,17)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신자들이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바오로 사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